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

하 진 호
영남문화재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 |
| II. 대구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양분류 | 1. 편년의 검토 |
| III. 지구별(수계별)유적 현황 | 2. 분기설정 및 편년 |
| | V. 맺음말 |

I. 머리말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은 입지상으로 산지 취락과 평지 취락으로 대별된다. 산지 취락은 하천이나 평지를 굽어다 보는 해발고도 40·75m 사이의 침식구릉지 또는 구릉산지에 입지하며, 평지취락은 하천에 의해 형성된 자연제방 또는 선상지에 입지한다. 크게 보면 낙동강중류역의 주요지류인 금호강유역에 해당하며 금호강으로 합수하는 소하천에 의해 진천천일대(A群)와 신천중류일대(B群), 팔계천일대(C群), 동화천 및 불노천일대(D群)의 4개 군으로 구분된다.

취락지 주변의 매장유구(지석묘, 석관묘)의 경우 신천상류(가창면일대의 지석묘), 팔계천(동명면일대의 지석묘), 동화천(서변동유적의 소형석관묘)유역은 10기 이하로 분포하고 있으나 신천중하류역(상동, 대봉동)과 진천천 일대(상인동, 대천동, 월성동)는 수십 기 이상이 군집 분포하고 있어 무덤의 분포권이 취락의 분포권과 유사하다. 다만 밀집도를 보면 A군과 B군 일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각 지구 군이 포괄하는 지리적 범위는 대략 A군이 전장 1.4km, B군이 2km, C군이 2.6km, D군이 1.0km이며 각 군의 중심지간 거리는 10km 내외이다. 도1에서 보면 대구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낙동강 동안의 범람원지대와 금호강 및 신천하류역의 범람원지대를 제외한 이 4개 지구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군은 소하천을 가까이에 두고 있으며 군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석기시대 이래로 청동기시대 전 기간을 통해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각 군이 하나의 취락공동체 단위(촌락)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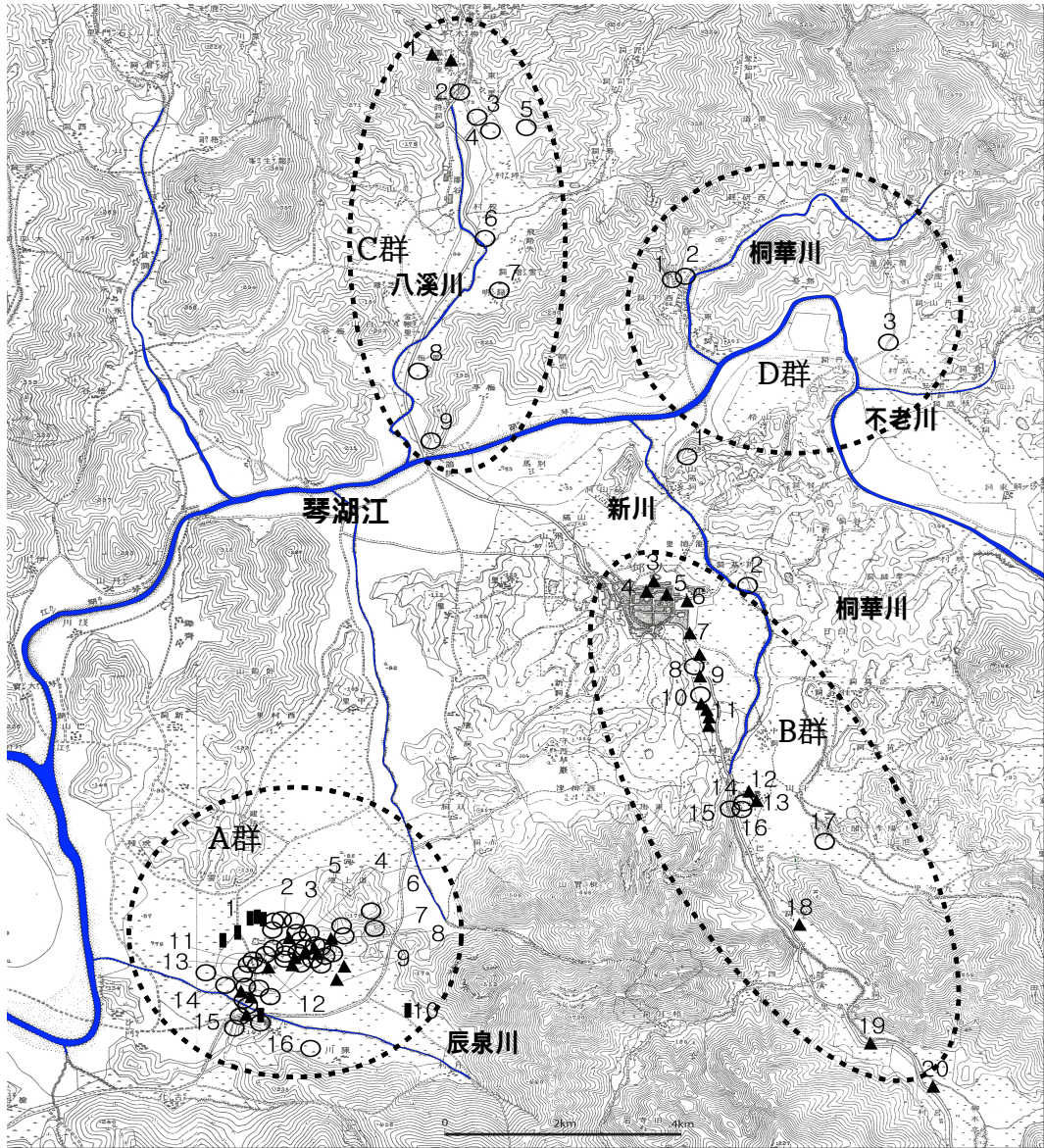
각 지구 군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주거지가 모두 확인되며, 전기의 경우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공반하기도 하며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중심이 되는 가락동식토기의 출토빈도가 매우 높다. 퇴화이중구연에 단사선과 공열 또는 구순각목이 결합된 복합문양의 혼암리식토기와 공열이나 구순각목문이 단독으로 구성된 토기형식인 역삼동식토기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주거지의 형식은 석상위석식노지를 갖춘 방형주거지와 위석식노지와 초석이 있는 대형의 장방형주거지, 위석식만 또는 위석식과 수혈식노지를 함께 갖춘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주거지와 수혈식노지만 갖춘 (세)장방형주거지 등 토기문양과 주거지의 구조에서 호서지방의 가락동유형과 매우 닮아 있다. 근년 조기의 표지유물이라 할 수 있는 (각목)돌대문토기와 전형이중구연토기의 출토예가 증가하고 있고, 혼암리식토기와 공열토기의 중복관계가 확인되는 등 미사리식·가락동식·혼암리식·역삼동식의 배열순서가 대구지역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유적별로 살펴본 후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II. 대구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의 무문토기 문양각종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문양을 단독문과 복합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여기에는 편년의 주요기준이 되는 이중구연요소도 문양의 범주에 넣어서 설명하고자한다.

단독문은 돌대문, 이중구연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단사선문의 출토예가 있고 복합문은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열문,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 구순각목단사선문, 구순각목공열단사선, 공열단사선문, 구순각목공열문이 있다.

단독문의 경우 돌대문은 각목돌대문, 절상(각목)돌대문, 유상돌대문으로 세분된다. 구순각목은 가장 많이 출토되는 단독문양으로 후기의 송국리식 주거지에서도 확인된다.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문양요소와 결합한 예가 많다. 공열문은 단독으로 출현하기도 하나 이중구연 또는 구순각목문과 결합된 예가 많다. 단사선문은 대부분 복합문양에 한해서 확인되나 늦은 시기의 주거지출토품에서 간혹 단독으로 출토되기도 하나 그 예가 소수에 불과하다.



- A群:** 1.月岩洞 立石 I·V, 2.月城洞 77·2遺蹟, 3.月城洞 591遺蹟, 4.月城洞 585遺蹟, 5.月城洞 支石墓, 6.月城洞 先史遺蹟, 7.松峴洞 遺蹟, 8.月城洞 山6番地遺蹟, 9.上仁洞 支石墓 I·IV, 10.上仁洞 立石, 11.大泉洞 511·2遺蹟, 12.大泉洞 支石墓, 13.大泉洞 497·2遺蹟, 14.大泉洞 413遺蹟, 15.辰泉洞 支石墓, 16.辰泉洞 立石
- B群:** 1.燕巖山 遺蹟, 2.新川洞 青銅器遺蹟 3.七星洞 支石墓, 4.太平路 支石墓 5.校洞 支石墓, 6.東門洞 支石墓, 7.三德洞 支石墓, 8.三德洞 188·1遺蹟, 9.大鳳洞 支石墓, 10.大鳳洞 마읍遺蹟, 11.梨川洞 支石墓, 12.中洞 支石墓, 13.上洞 支石墓, 14.上洞 74遺蹟, 15.上洞 89·2遺蹟, 16.上洞 162·2遺蹟, 17.斗山洞 青銅器遺蹟
- C群:** 1.鳳巖洞 支石墓, 2.東湖洞 451遺蹟, 3.東湖洞 遺蹟, 4.東湖洞 477遺蹟, 5.鶴亭洞 373·2遺蹟, 6.東川洞 遺蹟, 7.鳩岩洞 遺蹟, 8.梅川洞 遺蹟, 9.八達洞 遺蹟
- D群:** 1.西邊洞 860·1遺蹟, 2.西邊洞 聚落, 3.鳳舞洞 遺蹟

도1.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도

복합문양의 경우 대부분 이중구연문과 결합된 것과 이중구연문이 없는 것과 결합된 것으로 양분할 수 있겠다. 이중구연의 경우 전형이중구연문과 퇴화이중구연문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전형이중구연은 다시 점토대의 폭이 좁고 기벽에서 명확히 융기하듯이 접합된 것을 1문, 점토대의 폭이 3cm이상으로 토기기벽에서 점토대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을 2문으로 세분한다. 3문은 퇴화이중구연문으로 흔적기관으로서의 접합흔만 남거나 지워진 것으로 분류한다. 이중구연1문만 출토되는 주거지, 이중구연1문과 2문이 공반되는 주거지, 이중구연2문과 3문이 공반되는 주거지 모두가 확인되므로 이중구연문의 순서배열은 이중구연1문→이중구연2문→이중구연3문의 순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중구연문은 단독으로만 확인되는 경우(1문)도 있지만 대부분 단사선문, 거치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등이 문양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중구연1문과 결합된 단위문양은 거치문과 단사선문, 이중구연2문과 결합된 단위문양은 구순각목문, 단사선문, 이중구연3문과 결합된 것은 단사선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등이다. 유물간 공반관계에서 공열문은 이중구연2문과 결합된 것이 몇 점 확인되나 대부분 퇴화이중구연문인 이중구연3문과 결합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중구연의 공열문의 다른 문양과의 조합관계는 이중구연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단사선공열, 공열단사선문으로 나타나므로 공열문의 출현과 주사용 시기(공열문 또는 구순각목문으로 구성되는 토기형식의 조합)는 이중구연문의 퇴화과정 및 소멸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파악된다.¹⁾

〈표1〉 이중구연문과 단독문의 공반관계(○:몇 예 확인)

	이중구연1문	이중구연2문	이중구연3문	이중구연소멸
들대문	●			
단사선문	○	●	●	○
공열문		○	●	●
구순각목문	●	●	●	●

1) 역삼동식인 공열문과 구순각목문의 토기조합을 하는 주거지에서 점토대의 접합흔과는 무관하게 1조 또는 2조의 침선으로 표현된 구순각목심발형토기발이 확인되는데 이 횡침선문을 이중구연요소3문의 퇴화형이라 볼 수도 있겠다.

III. 지구별(수계별)유적 양상

1. 진천천일대

대구분지를 동서로 관류하는 금호강 이남에 해당하며, 대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서편 지역의 소위 월배선상지일대가 해당한다. 대구분지의 남쪽경계이기도 한 남부산지(앞산, 청룡산)에서 북서쪽의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넓게 펼쳐진 선상지일대에 다수의 청동기시대 취락이 분포하고 있다. 대구분지내 수계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된 곳이다.

이 지역은 구릉지대와 충적지대 모두에서 유적이 확인되고 있고, 충적지대의 유적은 크게 상인동지구와 월성동지구로 취락이 집중하는 분포양상을 하고 있다. 구릉지대에서는 월성동 선사유적(경북대학교박물관 2000)과 송현동유적(동국대학교박물관 2002)이 있다. 송현동유적은 출토유물이 많지 않아 유물의 공반관계를 알 수 없지만 주거지의 배치양태에서 단일취락으로 볼 수 있겠다. 월성동선사유적에서는 주거지4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2호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2식)단사선문이 시문된 심발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고, 공열문과 구순각목문만이 공반된 역삼동식주거지인 1호가 있다. 다음으로 월성동지구는 월배선상지의 선양부에 해당하며 입석과 무덤을 제외한 전기에 해당하는 취락의 수는 10여개소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월성동772·1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월성동591유적(성림문화재연구원 2009), 월성동498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월성동585유적(영남대학교박물관 2007), 월성동1275유적(영남대학교박물관 2006)이 있다.

주거지의 형태는 소형방형과 대형의 세장방형, 중형의 장방형이 확인되었는데 최근 초대형의 장방형주거지가 조사되어 주목된다. 월성동566번지일원²⁾에 해당하는데 둔산1식주거지의 형태이며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이중구연(1식)거치문, 각목돌대문토기, 유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1식)토기여서 그 공반관계가 호서지역의 가락동1기의 유구 및 유물조합과 동일하다. 이 유적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천동511·2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9)이 있는데 여기서도 절상(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1식)토기가 출토된 주거지가 있다. 주거지의 형식은 대형의 장방형이다.

세장방형주거지와 장방형주거지간의 중복관계가 분명한 월성동585유적을 살펴보면 선축된 주거지는 위석식노를 갖춘 세장방형주거지(4호·5호주거지)이며, 후축된 주거지는 수혈식노지

2) 최근 대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조사가 완료된 유적으로, 대구 월배지구 근생 제7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내 유적이 정식명칭이다. 현장에서 실건한 바에 의하면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21.12m, 너비 10.5m(221.7m²)여서 대구지역에서 가장 큰 주거지에 해당한다. 내부에 위석식노지와 벽가장자리를 따라 2열의 초석이 확인되었다. 향후 보고서에서 상세한 내용을 기대한다.

〈표2〉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요유적 조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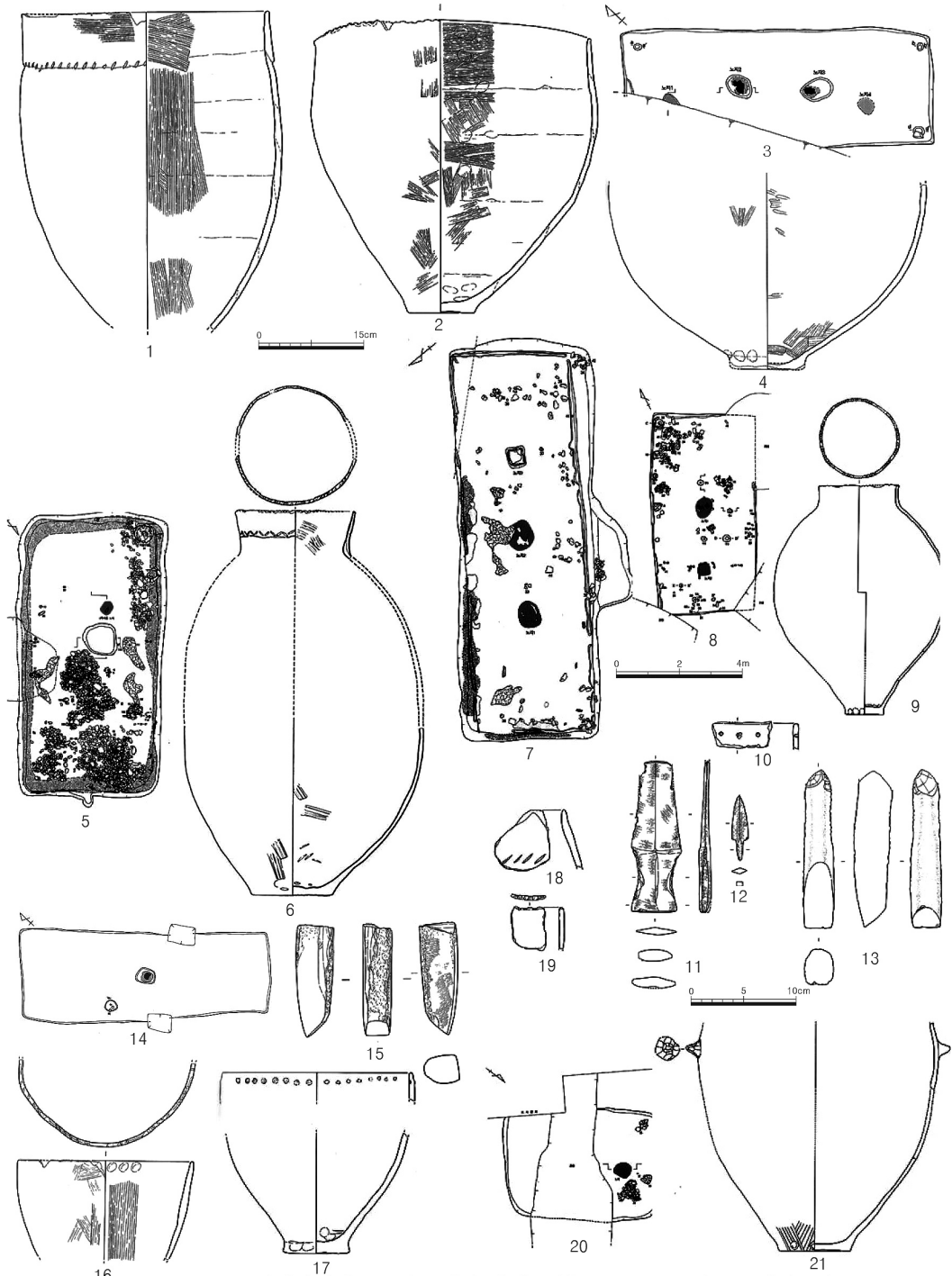
구 분	해당유적 및 조사내용
A群 신천천 유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성동선사유적: 주거지5기(경북대학교박물관 1991,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 송현동유적: 주거지14기(동국대학교박물관 2002) · 월성동1275유적: 주거지17동, 야외노지4기, 수혈5기(영남대학교박물관 2006) · 상인동171·1유적: 주거지2동, 매장유구4기(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 월성동772·2유적: 주거지15동, 환구1, 매장유구2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 진천동740·2유적: 주거지6동, 고상5동, 구4기(경북과학대 2006) · 상인동123·1유적: 주거지22동, 수혈6기, 고상건물1동, 야외노지1(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 월성동585유적: 주거지6동, 매장유구4기(영남대학교박물관, 2007) · 월성동591유적: 주거지7기,석곽1기, 집석1(성립문화재연구원 2009) · 대천동511·2유적: 주거지16동, 수혈7기, 매장유구68기(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 상인동87유적: 주거지37동(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 대천동497·2유적: 주거지1동, 수혈3기, 구(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 상인동98·1유적: 주거지11기(대동문화재연구원 2008) · 상인동119·20유적: 주거지10기(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 상인동128·8유적: 주거지16기(삼한문화재연구원 2010)
B群 신천천 유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동유적: 주거지40동, 수혈10, 구2, 매장유구 6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 대봉동마을유적: 주거지34동, 구2기, 수혈7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 상동 162·11번지 유적: 주거지2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 봉산동 185·4번지유적: 적석유구1, 주거지1(삼한문화재연구원 2010) · 삼덕동188·1번지 유적: 주거지5기, 수혈유구3기(삼한문화재연구원 2011)
C群 팔계천 유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달동유적: 주거지25동(유병록 1998,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 동천동유적: 주거지6기(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 매천동유적: 주거지13동, 하도(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 동호동181번지유적: 주거지 6기(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D群 동화·불노천 유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변동유적: 주거지49동, 고상건물3동,수혈48기, 집석17기, 구(경작지), 매장유구5기(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 봉무동유적: 주거지7기(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를 갖춘(2호·3호주거지) 장방형주거지여서 형식간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출토유물이 적어 명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후축된 2호주거지에서 퇴화이중구연단사선문이 출토되었다.

월성동1275유적은 조사된 17기의 주거지중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9기의 주거지가 모두 위석식노지의 소형 방형계 주거지 일색이다. 이러한 주거군의 조합은 상동유적의 1기와 동일하여 전기의 이른 시기의 대구지역의 주거형식은 취락단위로 다양한 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호주거지에서 이중구연(1식)토기, 5호주거지에서 이중구연(1식)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었다. 다음으로 상인동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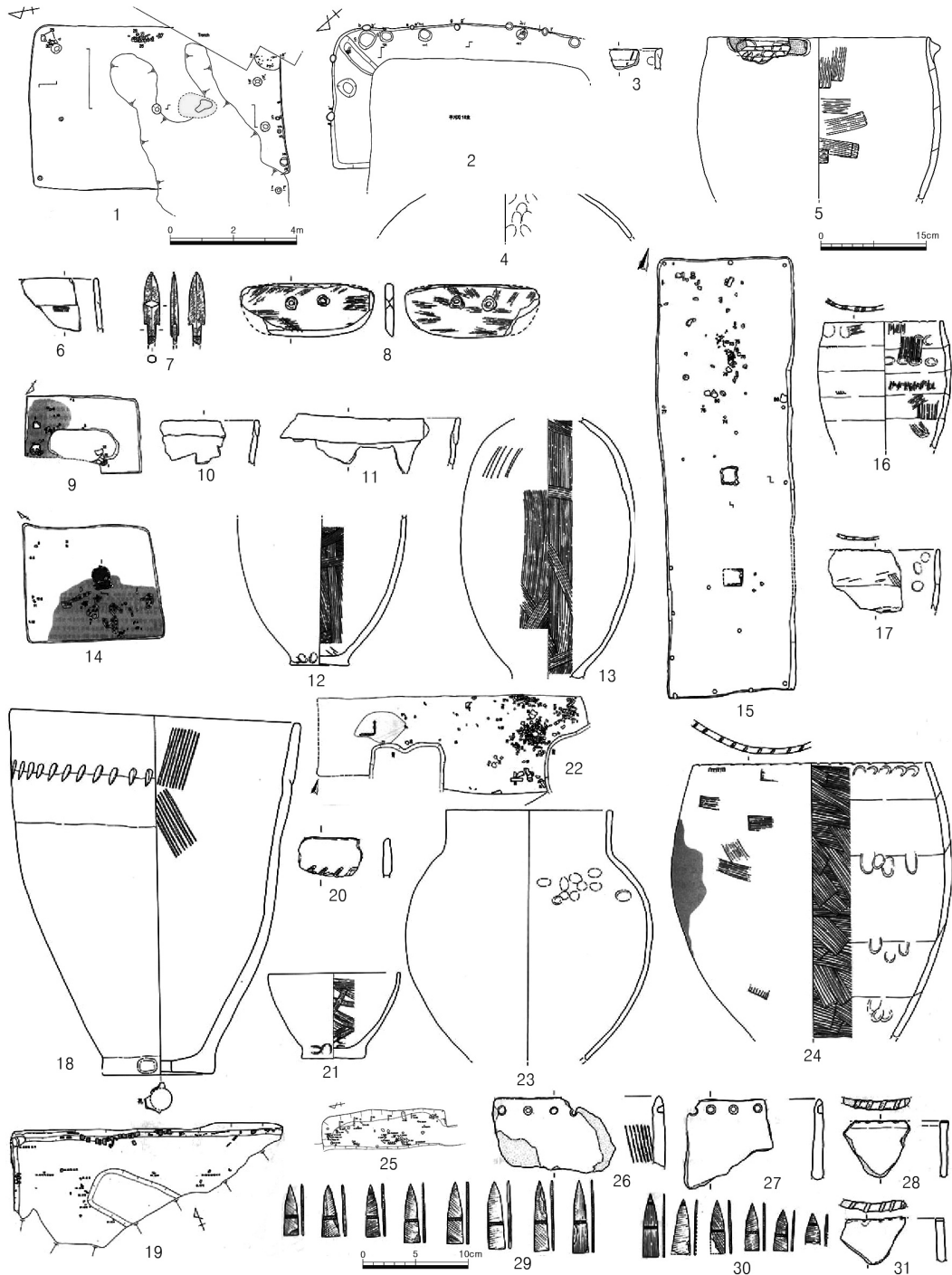
상인동구역은 상인동123·1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7)을 중심으로 상인동128·8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0), 상인동112·3(삼한문화재연구원 2011), 상인동119·20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상인동98·1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08), 상인동87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등이 결집된 곳으로 크게 보면 하나의 대규모 취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대부분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중대형주거지 중심으로 월성동지구와 비슷하다. 상인동123유적은 주거지간 중복관계와 주거지의 주축방향의 배치에 의해 2기로 구분되며, 1기는 상인동123유적의 3호주거지와 5호주거지가 해당하는데 이중구연(2문)단사선구순각목토기(3호주거지)와 이중구연(3문)단사선구순각목공열(5호주거지)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주거지들은 모두 중대형의 수혈식노지가 있는 장방형주거지이다. 중복관계의 상층유구에서는 구순각목문토기만(4호주거지), 공열토기와 구순각목문토기(13호주거지)가 출토되었다. 이중구연토기 2문과 결합되는 토기조합은 가락동식으로 파악되는데 공열 또는 구순각목토기구성의 역삼동식이 늦음을 알 수 있다. 상인동128·8유적에서는 이중구연에 단사선 또는 구순각목이 결합된 토기형식과 이중구연단사선에 공열문이 결합된 것이 많다. 이중구연은 모두 퇴화이중구연(3문)에 한해 결합된다. 그런데 이 주거지들은 대부분 중대형의 장방형주거지이며 내부에 위석식노지와 수혈식노지가 공존한다. 이러한 예는 대구지역에서 흔히 확인되는 것으로 위석식노지의 사용이 전기 후반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인동119·20유적 2호주거지(중형장방형, 위석식+수혈식노지)에서도 역삼동식 토기조합인 구순각목토기와 구순각목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즉 가락동식=위석식노지, 혼암리·역삼동식=수혈식노지라는 제일성은 대구지역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주거지간의 중복관계에 의해 위석식에서 수혈식노지로 변화하는 경향성은 엿 볼 수 있다. 상인동128·8유적의 10호와 11호는 중복되었는데 수혈식노지를 가진 소형방형계의 10호주거지가 장방형계의 11호주거지를 파괴하였다. 10호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공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11호주거지의 출토유물이 없어 토기형식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대구지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중복관계상 후축된 주거지에서 공열 또는 구순각목, 구순각목공열의 역삼동식토기가 출토하는 예가 많다. 상인동98·1유적 또한 비슷한 양상의 주거지형태와 유물조합을 하고 있다. 다만 7호주거지(대형장방형 위석식노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토기가 여러점 출토되었는데, 이중구연2식과 3식이 공반되고 있다. 이는 이중구연1식과 2식의 공반 예가 있으므로 이중구연의 형식변화는 1식→2식→3식으로 나열이 가능하다.



도2. 진천천상인동구역 주거지 및 유물(유구1/200, 토기1/9, 석기1/6)

1:상인동1233호, 2~3:상인동123-4호, 4:상인동123-5호, 5~6:상인동98-7호, 7:상인동98-5호, 8~13:상인동119-2호, 14~17:상인동123-13호, 18~19:상인동123-2호, 20~21:상인동98-3호



도3. 진천 월성동지구의 주거지 및 유물 (유구1/200, 토기1/9, 석기1/6)

1·3:대천동511-8호, 2·4~5:대천동511-6호, 6~8:월성동591-1호, 9~13:월성동1275-16호, 14:월성동1275-5호, 15~17:월성동591-6호, 18~19:월성동선사-2호, 20~21:월성동585-2호, 22~24:월성동591-2호, 25~31:월성동선사-1호

2. 신천중류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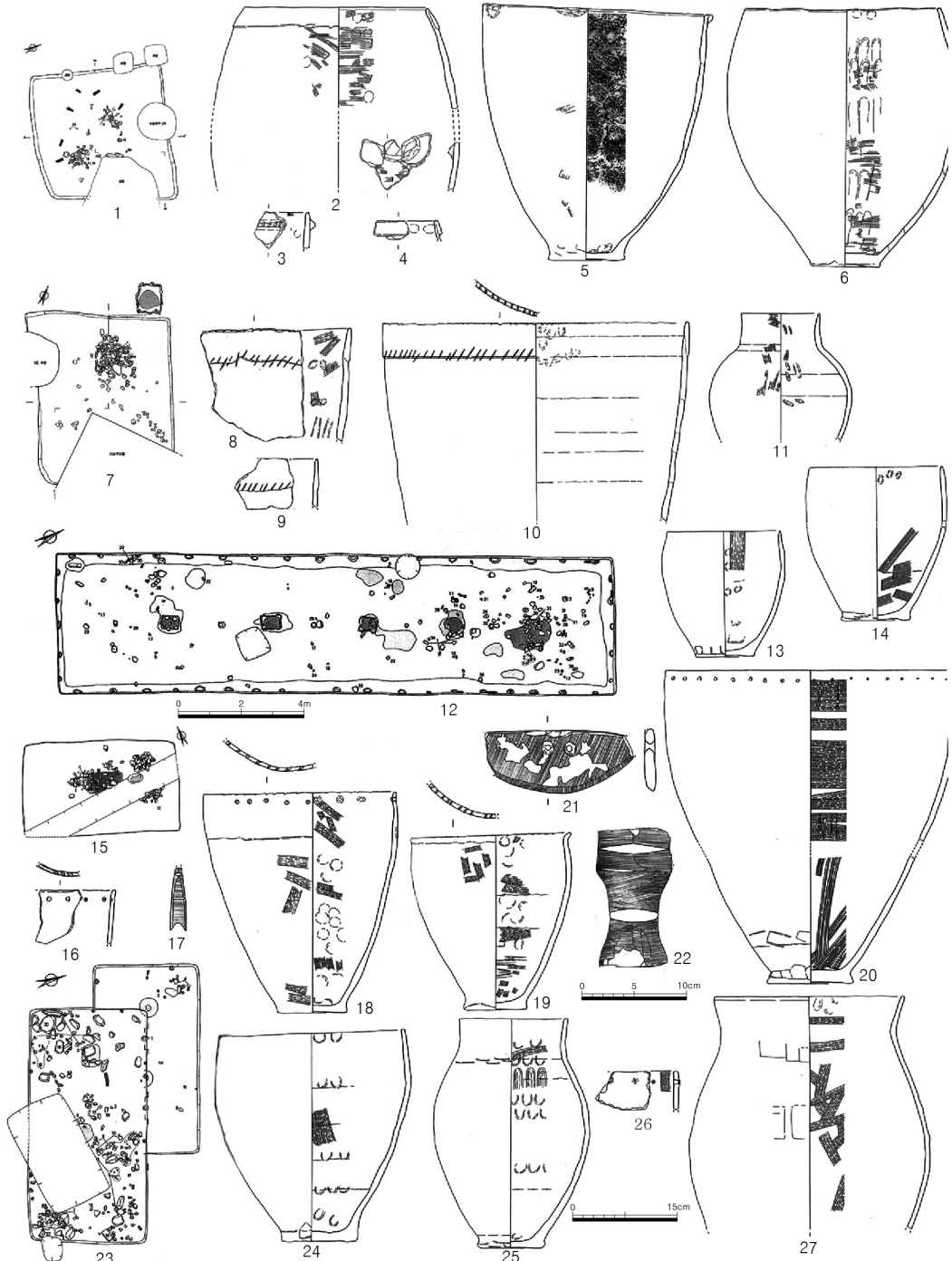
대구분지를 동서로 관류하는 금호강 이남의 대구시가지 일대에 해당한다.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신천천중류 일원에 다수의 지식묘구과 취락이 분포한다.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삼덕동188·1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1), 봉산동185·4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0), 상동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2·2004), 대봉동마을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상동162·11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등이 있다.

최근 조사되어 보고서가 발간된 삼덕동188·1유적에서는 전기의 이른시기 주거지3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중소형의 방형주거지이다. 노지는 위석식이며 단벽축에 치우쳐 설치되어있다. 3호주거지에서 절상(각목)돌대문토기편과 유상(6개)돌대문토기발, 이중구연토기발이 공반되었다. 이중구연토기는 폭이 좁고 이중구연대 하단이 기벽에 뚜렷하게 표현된 전형이중구연토기이다. 이중구연토기와 돌대문토기(절상)가 공반되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유적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봉산동185·4유적에서도 돌대문토기(유상)와 이중구연(1문)거치문토기가 공반되어 출토되었다. 유물은 1호주거지 상부 적석부에서 확인되었고 주거지내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주거지는 위석식노지를 갖춘 방형주거지여서 이른 시기의 주거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삼덕동188·1유적 3호주거지와 봉산동185·4유적 1호주거지가 대구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주거지³⁾중 하나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교적 주거지의 수가 많이 확인된 상동유적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상동유적에서는 40기의 주거지와 다수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가락동식인 이중구연단사선(상동수성 7·14호, 상동우방1차9·12호, 상동우방2차4호)이 출토된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고 퇴화이중구연토기에 공열 또는 단사선이 시문된 토기형식(상동수성15·16호, 상동우방1차5호)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크게 2개시기로 대별될 수 있겠다. 상동취락은 주거지형식에 있어 기존 가락동식이나 역삼동식의 주거형인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이 아니라 모두 소형의 방형계열 주거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위석식노지가 중심이고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는 수혈식이 많다.

상동유적에서 주거지간의 중복관계가 다수 확인되나 보고서 내용 중 선후관계의 설명이 없어 명확하지 않다. 그 중 14호주거지(상동수성)와 수혈3호(상동수성)가 중복되었는데 수혈3호가 14호주거지를 파괴하였다. 14호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2문)단사선문토기와 이중구연(2문)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고 수혈3호에서는 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동 유적의 15호

3) 삼덕동188·1유적 1호와 3호주거지 노지에 대한 고지자기측정결과 고지자기측정데이터는 북각이 46·48도여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데이터 북각50·55도보다 빨라 전기의 이른시기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가 참조된다. (삼한문화재연구원 2011)



도4. 신천천일대의 주거지 및 유물(유구1/200, 토기1/9, 석기1/6)

1~6:삼덕동188-3호, 7~11:상동(수성)14호, 12~14:대봉동12호, 15~19:대봉동11호, 20~22:대봉동19호, 23~25:대봉동21호, 26~27:대봉동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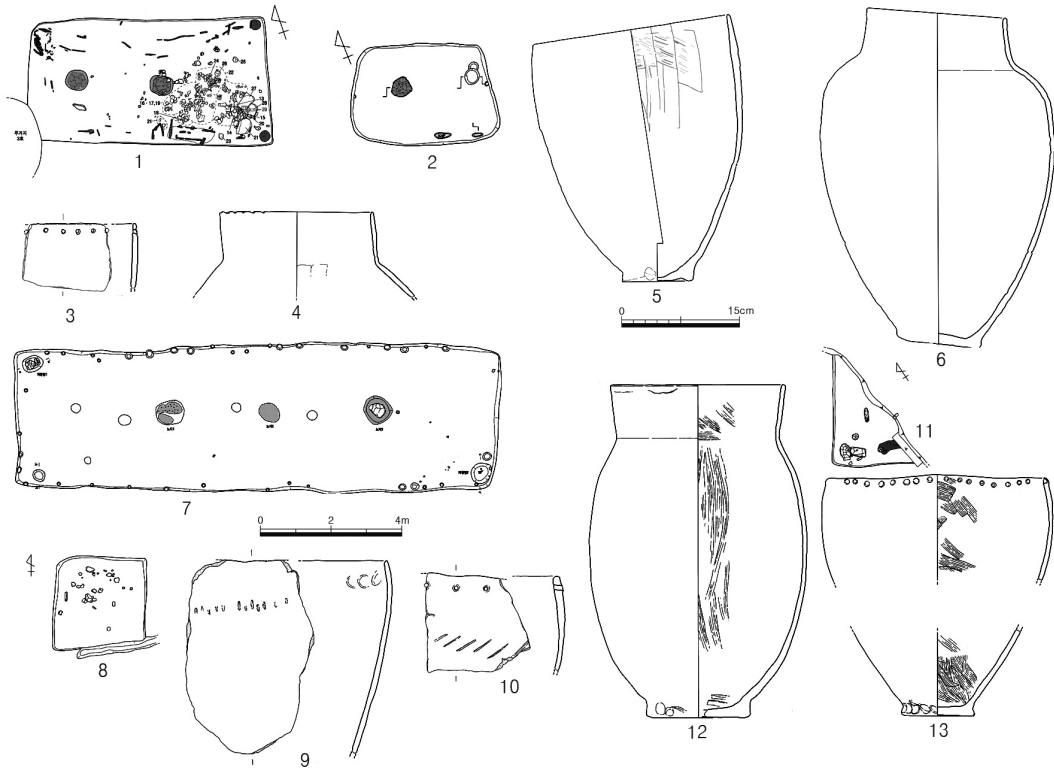
성하는 주거지의 형태는 방형중심의 상동취락과 많이 다른 양상이다. 이중구연토기는 모두 퇴화된 형식으로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공열문 등 혼암리식이 대부분인데 주거지의 형태는 가락동식에서 왕왕 보이는 위석식노지의 주거지가 계속 사용된다. 다음으로 대봉동유적에서 조사된 유구중 구4호와 2·3호의 일괄유물이 주목된다. 구2·3호는 구4호의 상층에 조성되어있어 선후 관계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먼저 조성된 구4호 내부 일괄유물은 200여점이 되는데 토기 문양이 확인되는 유물은 공열토기와 구순각목문토기 뿐이다. 두 개의 문양요소가 결합된 것이 있으나 대부분은 공열문 또는 구순각목문 단독으로만 출토되었다. 전형적인 역삼동식의 유물조합이라 하겠다. 이 구4호의 상층에 조성된 구2·3호의 일괄유물을 살펴보면 구순각목문토기, 무문파수부발형토기, 적색마연주구부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은 송국리식주거지에서 출토예가 많은 것으로 후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열과 구순각목으로 구성된 유물조합은 송국리식의 앞 단계에 두어 청동기시대 전기의 늦은 단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팔계천일대

대구분지를 동서로 관류하는 금호강의 서북편 일대의 팔계천 주변에 형성된 충적대지이다.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중심취락인 동천동유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으로는 매천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동천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동호동181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팔달동유적(유병록 1998,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등이 있다.

매천동유적은 크게 2기로 구분되는데 1기는 복수의 수혈식노지를 갖춘 세장방형주거지가 중심이며 2기는 수혈식노지 1기를 갖춘 소형의 방형 또는 장방형의 주거군으로 구성되어있다. 출토유물은 1기에 해당하는 유구에서 토기문양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고 부리형석기와 주상편인석부만 출토되었다. 2기의 소형주거지에서는 구연부가 직립하는 구순각목(2호), 공열단사선문·종방향의 날알문(3호), 공열문·장동호(4호)가 출토되었다. 매천동2기에 해당하는 유구의 유물 공반관계를 보면 단독문의 경우 공열문, 구순각목문이 복합문의 경우 이중구연이 소멸된 공열단사선문이 확인되었다. 보통 단독문(공열문)이 중심되는 역삼동식의 주거지가 중대형의 (세)장방형인데 비해 소형으로만 구성된 주거군의 배치로 볼 때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는 4호 출토 장동호의 형태가 다음시기의 송국리식토기와 유사한 점도 이를 방증한다 하겠다.

동천동유적의 경우 대부분 후기에 해당하는 송국리식의 원형주거지가 다수이나 수혈식노지



도5. 팔계천일대의 주거지 및 유물(유구1/200, 토기1/9, 석기1/6)
 1·3~5:동호동181-5호, 2·6:동호동181-6호, 7:매천동6호, 8~10:매천동3호, 11~13:매천동4호

1기를 갖춘 중소형의 (장)방형주거지가 6기가 전기에 해당한다. 출토유물은 없으나 주거지의 형식에서 매천동2기와 병행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동호동181유적은 6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지만 이 중 2기만 전기의 것으로 파악된다. 5호의 경우 중형장방형주거지로서 중심주공과 수혈식노지 2기를 갖추고 있다. 구순각목문과 공열문이 단독으로 출토되었다. 6호의 경우 수혈식노지1기를 갖춘 소형방형주거지로서 매천동4호 출토 장동호와 유사한 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팔달동유적의 경우 보고서가 미간이라 정확한 유물조합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기 보고

〈표5〉 팔계천일대의 주거지 무문토기출토 문양 현황

유구명	이중구연(3문)	이중구연소멸			
	단사선구순각목	공열단사선	공열	구순각목	단사선
팔달동1호	●				
동호동185,5호			●	●	
매천동3호		●			●
매천동2호				●	
매천동4호			●		

된 자료(유병록 1998)에 의해 살펴보면 이중구연(3분)단사선구순각목의 복합문(1호)과 구순각목(13호), 공열(돌류)문(14호) 등이 출토되었다. 취락의 배치를 보면 구릉중앙에 입지한 대형의 세장방형주거지1동을 중심으로 사면을 따라 반원상으로 장방형주거지가 배치되고 있다. 위석식노지를 갖추고 있고 취락의 중심에 입지한 1호주거지의 연대가 취락의 연대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다.

출토유물과 주거군의 양상에서 팔계천일대의 유적간의 선후관계는 팔달동·매천동1기·동호동181·매천동2기·동천동으로 파악된다.

4. 동화천 및 불노천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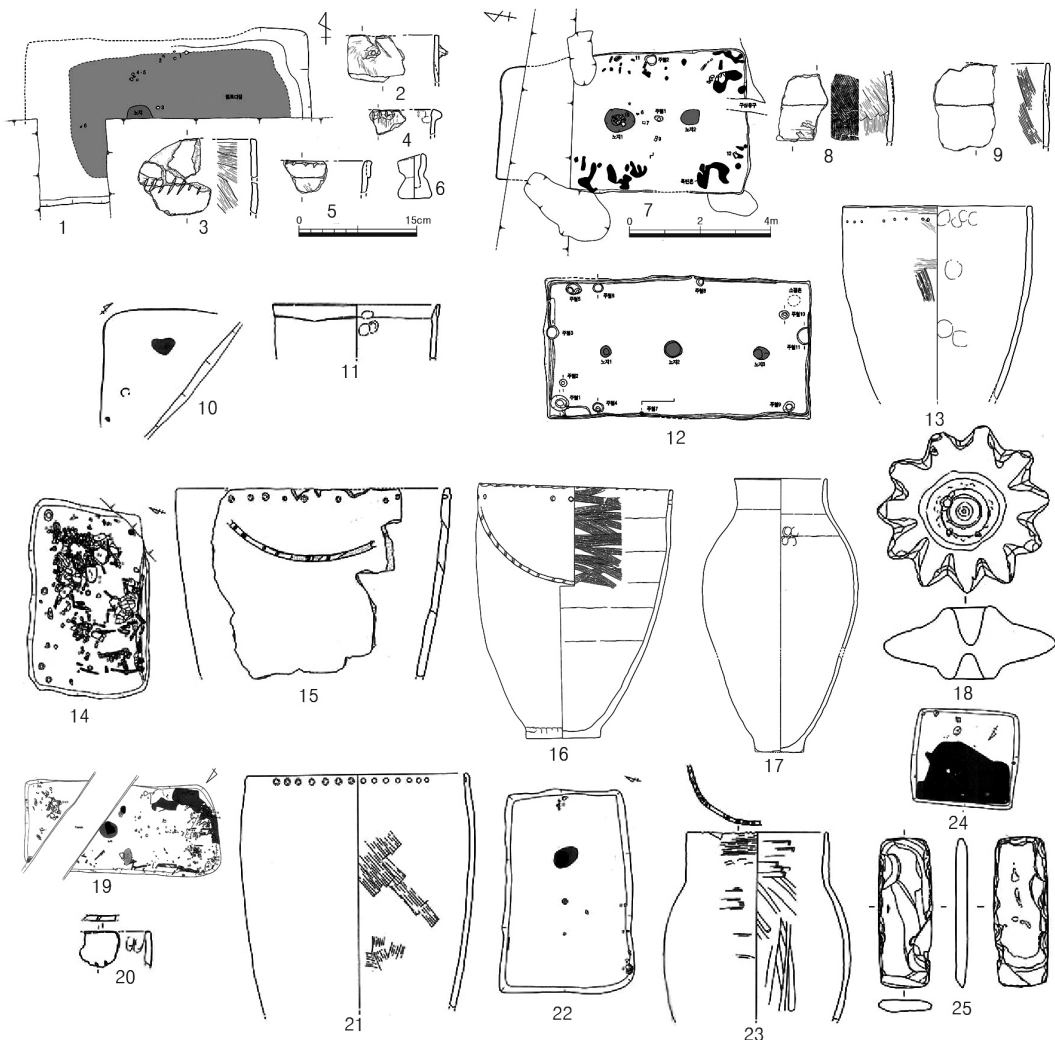
대구분지를 관류하는 금호강의 동북편 일대에 해당한다. 이 일대의 청동기시대의 유적조사는 미진한 편이어서 조사된 유적은 2개소가 있다. 동화천유역의 강안충적지대에 위치한 서변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2)과 불노천 하류에 위치한 봉무동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11)이 있다.

먼저 서변동유적에서는 49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42기가 전기에 해당하는 주거지이다. 주거지간의 중복관계는 16호(소형장방형)→20호(소형장방형)의 한 사례만 있지만 출토유물이 없다. 서변동유적에서는 대형주거지는 세장방형주거지 5호와 방형주거지46호가의 2예를 제외하면 모두 중형 및 소형의 장방형주거지가 중심인데 위석식노지가 확인되지 않고 모두 수혈식노지로만 구성되어있고 역삼동식토기와 무문심발형토기의 구성이 많아 취락의 중심시기는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중구연(1분)토기만 출토되는 유구(28호, 30호), 이중구연토기(1분)와 이중구연(2분)단사선문토기가 공반되는 경우(46호), 이중구연(3분)단사선문(12호), 이중구연(3분)단사선구순각목문과 공열문이(48호) 출토되는 경우가 있어 각 문양형식간의 선후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구연(1분)→이중구연(2분)단사선문→이중구연(3분)단사선구순각목의 순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단독문으로서 공열문, 구순각목문이 있는데 구순각목은 이중구연(1분)토기와 이중구연(3분)단사선, 공열문과 각각 공반되므로 이른 시기부터 출현하여 늦은 시기까지 존속한 문양으로 파악된다⁴⁾. 따라서 서변동유적의 경우 전형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1기, 퇴화이중구연단사선, 퇴화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의 2기, 이중구연이 소멸된 구순각목공열문, 단독문양의 3기로 단계를 나눌 수 있겠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공열이나 구순각목문만 공반되는 역삼동식인 3기가 중심이 되는 유적이다.

다음으로 봉무동유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7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형태는 중형의 장

4) 대구지역의 후기 송국리식의 방형 또는 원형주거지내에서도 구순각목문토기의 출토예는 많다.

방형이며 내부에 수혈식노지 2·1개를 갖추고 있다. 1호주거지에서 절상(각목)돌대문과 유상돌대문, 이중구연(1분)토기편이 이 출토되었다. 공반되어 이중구연(2분)단사선문토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절상돌대문과 유상돌대문은 가락동식토기와 공반됨을 알 수 있다. 2호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토기 2점이 출토되었는데 이중구연단이 3cm이상으로 폭이 넓으나 이중구연대 하단이 토기기벽에 비교적 뚜렷한 것(2분)이다. 이외 심발형공열토기만 출토된 3호주거지가 있다.



도6. 동화천, 불노천일대의 주거지 및 유물(유구1/200, 토기1/9, 석기1/6)

1~6:봉무동1호, 7~9:봉무동2호, 10~11:서변동28, 12~13:봉무동3호, 14~18:서변동1호,
19~21:서변동41호, 22~23:서변동13호, 24~25:서변동26호

〈표6〉 동화천·불노천일대의 주거지 무문토기출토 문양 현황

해당유구	돌대문		이중구연 1문	이중구연 2문		이중구연 3문		이중구연소별		
	절상	유상	이중구연	이중구연	단사선	단사선	단사선 구순 각목	구순 각목 공열	공열	구순 각목
서변동1호								●		
서변동2호										●
서변동3호										●
서변동12호						●				●
서변동13호										●
서변동18호										●
서변동25호									●	
서변동27호										●
서변동28호			●							
서변동30호			●							
서변동36호										●
서변동41호									●	
서변동42호									●	●
서변동46호			●		●					●
서변동48호							●		●	
봉무동1호	●	●	●		●					
봉무동2호				●						
봉무동3호									●	

IV.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

1. 편년의 검토

2장에서 언급하였지만 대구지역의 무문토기문양요소는 이중구연의 퇴화 및 소멸에 따른 변화의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돌대문토기는 이중구연1문과 역삼동식인 공열토기는 이중구연3문과 결합되어 나타난 사실에 주목하였다.

유물의 공반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돌대문토기는 각목돌대문과 절상돌대문, 유상돌대문이 함께 출토되는 것(월성동566)과 절상돌대문과 유상돌대문이 공반되는 것(삼덕동188, 봉무동)이 있다. 이 유구에서는 이중구연1문(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거치문, 이중구연구순각목문)과 공반되므로 이를 1군의 유물조합이라 하겠다. 다음은 돌대문토기가 보이지 않고 이중구연1문만 출토되는 유구(시지동, 대천동511, 월성동1275외) 2군, 이중구연2문(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이중구연구순각목)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소수의 이중구연1문(이중구연구순각목)이 포함된 것을 3군(봉무동, 서변동, 상동, 월성동외)이라 한다. 4군

은 퇴화이중구연인 이중구연3문이 중심이고 여기에 다양한 형식의 문양이 조합된 것(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 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인데 이중 일부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2문(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과 공반되기 한다.(서변동, 상동, 대봉동, 월성동, 상인동유적 외) 5군은 공열문과 구순각목문, 또는 구순각목공열문이 공반되는 것으로 이중구연요소는 소멸되어 유물조합상에서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다.(표7)

각 군의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1군은 미사리식토기조합을 이루는 것으로 인데, 기존연구성과(이상길 1999, 안재호 2000·2006, 이형원 2009)에 의해 청동기시대의 가장 이른 단계로 보는 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는 없다. 그런데 대구지역의 경우 돌대문토기단순기라 할 만한 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절상돌문이나 유상돌대문, 이중구연토기와 공반되고 있고 특히 절상돌대문은 금산수당리, 진주대평어은1지구, 김천송죽리의 예에서 가락동식토기와 공반되는 것이 많아 초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2군은 소위 상촌리식토기인 평저심발이중구연토기인데 시지동1호주거지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그 외는 모두 편으로만 출토되었다. 이중구연1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절상돌대분토기와 공반관계를 가지므로 1군과 2군은 비슷한 단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7〉 대구지역 무문토기 문양조합관계

	유물조합	해당유구	문양형식
1군	돌대문토기+이중구연1문	삼덕동3호, 봉산동1호, 봉무동1호, 대천동511·1호	절상돌대, 유상돌대, 이중구연 이중구연거치문
2군	이중구연1문만 구성	시지동1호, 대천동511·8호, 월성동1275·16호, 상동수혈4호	이중구연, 구순각목
3군	이중구연2문이 중심 (일부 이중구연1문 포함)	봉무동2호, 서변동46호, 상동(수)14호, 상동(우1)12호, 상동(우2)4호, 월성동1275·5호, 월성동591·1호	이중구연(1),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이중구연(1)구순각목문 이중구연구순각목문
4군	이중구연3문이 중심 (일부 이중구연2문 포함)	서변동12호, 서변동48호, 상동(수)15호, 상동(수)16호, 상동(우1)5호, 대봉동10호, 대봉동11호, 대봉동16호, 대봉동23호, 상인동128·1호, 월성동선사2호, 월성동585·2호, 월성동591·6호, 상인동123·5호, 상인동128·12호, 상인동98·7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문 이중구연(2)단사선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 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 공열문
5군	이중구연소멸 (일부 이중구연3문 포함)	상동(수)수3호, 대봉동6호, 대봉동8호, 대봉동11호, 월성동선사1호, 상인동123·13호, 상인동128·10호, 상인동128·15호, 상인동119·2호, 동호동181·5호, 매천동3호, 매천동4호, 서변동1호, 서변동25호, 서변동42호, 봉무동3호	공열문 이중구연(3)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 공열단사선

4군은 퇴화이중구연인 이중구연3문이 중심으로 이중구연의 퇴화과정으로 파악한다면 3군에 비해 형식학적 후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군(가락동식)→4군(혼암리식)으로 배열할 수 있겠다. 5군은 공열 또는 구순각목문으로 구성된 토기조합인데 이중구연의 요소는 사라지고 단독문으로 남게된다. 3·4군의 복합문에서 단독문으로 변화하는 것인데 4군의 이중구연3문(퇴화이중구연)과 결합된 공열문이 이중구연이 소멸되고 공열문만 남게 되는 것이다. 혼암리식과 역삼동식의 선후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백흥기 1992, 박영구 2000, 김한식 2006, 김현식 2008, 庄田慎矢 2009)이 지면을 통해 혼암리→역삼동이라는 형식변천관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각 군 간의 중복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진천천일대의 상인동123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간의 중복관계에 의해 상층유구인 13호주거지는 5군의 유물조합이고 하층유구인 3호주거지·5호주거지는 4군의 유물조합이다. 상인동 128·8유적의 10호주거지는 11호주거지를 파괴하며 조성되었다. 10호주거지에서 5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4군→5군의 순서배열이 가능하다.

신천천일대의 상동유적 14호주거지(先)와 수혈3호(後)의 중복관계에서 선축된 14호주거지에서 3군의 유물조합, 후축된 수혈3호에서는 5군의 유물조합이 확인된다. 동 유적의 15호주거지와 16호주거지의 유물출토 상황은 모두 4군의 유물조합을 가지는 것에 의해 3군→4군→5군의 편년이 가능하다. 5군(역삼동식)의 편년적 위치와 관련해 대봉동유적의 구 출토 일괄유물이 주목된다. 하층의 구(4호) 일괄유물(200여점)은 모두 5군의 유물조합으로만 확인되며, 상층의 구(2,3호)일괄유물은 대구지역의 송국리식 방형 또는 원형의 주거지에서 자주 확인되는 무문과수부발형토기와 구순각목문토기여서 5군의 유물조합은 후기의 직전단계로 파악된다.(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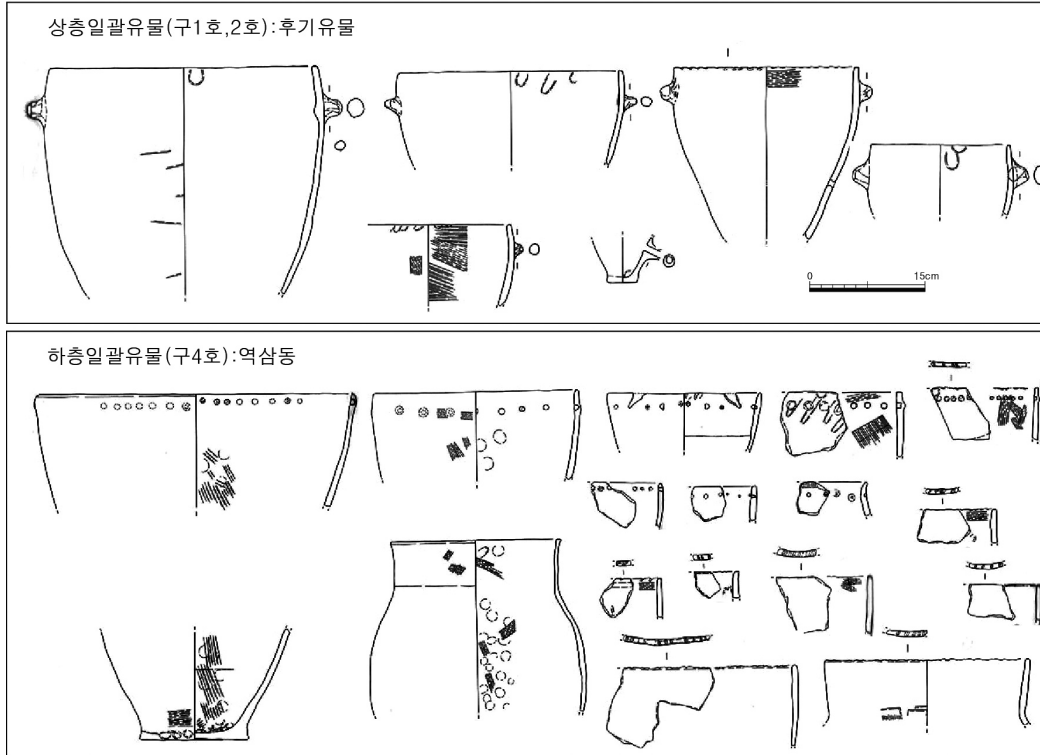
팔계천일대의 매천동유적의 2기로 편년되는 주거군의 구성방식은 모두 소형방형계열로 주거지의 형식에 의해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파악되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조합은 모두 공열 및 구순각목의 5군 유물조합이다. 공반된 유물 중 장동형호의 형식이 송국식 토기와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유물의 형식학적변천과정과 각형식의 공반관계상, 유구의 중복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각 군의 상대서열은 1군·2군(미사리·가락동식)→3군(가락동식)→4군(혼암리식)→5군(역삼동식)의 순서가 된다.

끝으로 각 군의 절대연대를 C14연대측정치(표8,표9)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자.

연대측정 결과표에 의하면 한기의 주거지에서 검출된 다수의 시료에 나타난 계측결과는 그 오차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매천동6호주거지의 5점의 시료는 저장공1에서 검출된 것이 3150 ± 50 (BP), 저장공3에서 검출한 시료는 2740 ± 60 (BP)으로 무려 500년의 연

대폭이 발생하였다. 상인동128유적 13호주거지 또한 3140 ± 50 (BP), 2689 ± 80 (BP)의 연대치가 확인되는 등 실제 유구의 조성연대보다 오래된 측정치가 나오는 것은 고목효과나 해양 리지버효과 등과 관련하여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는 복수의 시료 중 가장 늦



도7. 대봉동유적 공열토기 일괄유물 중복관계

〈표8〉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C14 연대 순서배열

주거지	측정기관	측정연도	C14연대(BP)	보정연대(BC)	토기조합군	편년
월성동1275,15호	서울대	2006	3100 ± 60	1355		1기
대천동511,16호	서울대	2008	3000 ± 50	1230	1군	1기
상인동128,12호·c	서울대	2009	3100 ± 50	1370	3군	2기
봉무동2호·2	서울대	2010	2960 ± 50	1190	3군	2기
월성동1275,5호	서울대	2006	2970 ± 40	1185	3군	2기
서변동27호	서울대	2000	2970 ± 50	1165		3,4(?)
서변동1호	서울대	2000	2920 ± 60	1115	5군	4기
매천동·3호	서울대	2009	2860 ± 50	1060	5군	4기
봉무동3호·1	서울대	2010	2790 ± 60	950	5군	4기
매천동·6호저장공3	서울대	2009	2740 ± 60	910		4기
상인동119,2호	서울대	2010	2750 ± 50	885	5군	4기
상인동128,13호·e	서울대	2009	2680 ± 80	855	5군	4기
상인동119,4호	서울대	2010	2640 ± 50	810	5군	4기

〈표9〉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C14 연대측정결과표

연번	구분	주거지	측정 기관	측정 연도	C14연대	보정연대 (BC)
1	팔계천유역권	동호동181유적 5호주거지 · 1	서울대	2010	2980±50	1210
2		동호동181유적 5호주거지 · 2	서울대	2010	2990±50	1215
3		매천동유적 5호주거지 · 1	서울대	2009	2850±50	1010
4		매천동유적 5호주거지 · 2	서울대	2009	2880±50	1050
5		매천동유적 3호주거지	서울대	2009	2860±50	1060
6		매천동유적 6호주거지 · 7	서울대	2009	2890±40	1065
7		매천동유적 6호주거지 · 10	서울대	2009	2770±50	930
8		매천동유적 6호주거지저장공 · 1	서울대	2009	3150±50	1440
9		매천동유적 6호주거지저장공 · 2	서울대	2009	2900±60	1105
10		매천동유적 6호주거지저장공 · 3	서울대	2009	2740±60	910
11	동화천 불노천유역권	서변동유적 1호주거지	서울대	2000	2920±60	1115
12		서변동유적 25호주거지	연구소	2000	2710±80	
13		서변동유적 27호주거지	서울대	2000	2970±50	1165
14		서변동유적 32호주거지	서울대	2000	2690±40	855
15		봉무동유적 3호주거지 · 2	서울대	2010	2720±60	865
16		봉무동유적 3호주거지 · 1	서울대	2010	2790±60	950
17		봉무동유적 2호주거지 · 1	서울대	2010	3010±50	1255
18		봉무동유적 2호주거지 · 2	서울대	2010	2960±50	1190
19		봉무동유적 2호주거지 · 3	서울대	2010	2970±50	1210
20	진천천유역권	대천동511 · 2유적 10호주거지	서울대	2008	3030±50	1270
21		대천동511 · 2유적 16호주거지	서울대	2008	3000±50	1230
22		월성동585유적 1호주거지	서울대	2006	2680±40	850
23		월성동585유적 4호주거지	서울대	2005	2730±50	870
24		월성동1275유적 5호주거지	서울대	2006	2970±40	1185
25		월성동1275유적 15호주거지	서울대	2006	3100±60	1355
26		월성동1275유적 16호주거지	서울대	2006	2920±80	1115
27		상인동128유적 5호주거지	서울대	2009	3350±60	1650
28		상인동128 · 8유적 12호주거지 · b	서울대	2009	3200±60	1470
29		상인동128 · 8유적 12호주거지 · c	서울대	2009	3100±50	1370
30		상인동128 · 8유적 13호주거지 · d	서울대	2009	3140±50	1420
31		상인동128 · 8유적 13호주거지 · e	서울대	2009	2680±80	855
32		상인동119 · 20유적 2호주거지	서울대	2010	2750±50	885
33		상인동119 · 20유적 4호주거지	서울대	2010	2640±50	810
34		상인동119 · 20유적 5호주거지	서울대	2010	2710±50	858
35		상인동98 · 1유적 1호주거지	서울대	2008	3070±50	1320
36		상인동98 · 1유적 3호주거지	서울대	2008	2740±50	900
37		상인동98 · 1유적 4호주거지	서울대	2008	2820±50	990
38	상인동98 · 1유적 5호주거지	서울대	2008	3140±50	1410	

은 연대치를 해당 주거지의 절대연대로 파악하기로 한다. 유물조합에 의해 1군과 2군의 유물 조합이 확인된 주거지에서는 가장 높게 나온 것이 3100 ± 60 (월성1275·15호), 가장 늦게 나온 것이 2920 ± 80 (월성1275·16호)이다. 3군의 유물조합이 확인된 주거지는 3100 ± 50 (상인128·12호)에서 2970 ± 40 (월성동1275·5호)사이에 포함된다. 4군의 유물조합이 있는 주거지의 시료 결과치는 없다. 5군의 경우 가장 높은 측정결과치는 동호동181유적으로 2980 ± 50 이며, 가장 늦은 연대치는 상인동119·4호의 2640 ± 50 이다. 5군조합의 유물이 구성된 주거지의 연대치 17개 시료 중 대부분이 2640 ± 50 에서 2770 ± 50 사이에 분포한다. 연대측정치의 상대서열은 1군·2군→3군→5군의 순이다. 각군의 가장 늦은 연대측정치에 의해 1군과 2군의 절대연대는 BC1230년(13세기전엽), 3군은 BC1185년(12세기후엽), 5군은 BC810년(9세기전엽)이 된다.⁵⁾

2. 분기 설정 및 편년

앞에서 검토한 바에 의해 대구지역의 분기 설정은 각 군의 상대서열과 같다. 대구지역 청동기시대전기는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 단계별로는 자료의 증가 및 주거지의 구조나 주거군의 조성방식 등에 의해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1군·2군(미사리·가락동식)→3군(가락동식)→4군(혼암리식)→5군(역삼동식)의 순서는 각각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I기, II기, III기, IV기와 대응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I기는 출토유물상 문양조합 1군과 2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구연1문과 각목돌대문토기, 절상돌대문토기, 유상돌대문토기 등이 방형의 중형주거지와 광폭의 중대형 장방형주거지에서 공반된다. 노지는 석상위석식이 있는 시지동1호가 있지만 대부분 위석식노지가 주를 이루고 초석이 보이는 것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신천천일대의 삼덕동유적, 봉산동유적, 불노천 주변의 봉무동유적, 진천전일대의 월성동유적, 대천동유적이 있다. I기의 경우 한반도남부지방에서 통용되는 청동기시대 조기로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대구지역의 출토유물 공반관계를 통해 볼 때 돌대문토기 단순기가 확인되지 않음으로, 향후 조사 자료의 증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시지동1호는 상촌리식토기가 출토하였는데 단벽에 치우친 석상위석노지를 갖추고 있다. 돌대문토기가 출토하지 않았지만 I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거지가 위석식노지와 갖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여 I기의 가장 이른 단계로 보고자 한다. 절대연대는 대략 서기전 13세기대를 중심연대로 보고자 한다.

5) C14연대측정결과는 양호한 자료의 축적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연대결정에 참고자료(상대서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I기는 이중구연2분이 중심이 되는 3군의 유물조합이다.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를 지표로 하며, 여기에 단사선이 없는 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된다. 이중구연과 결합되는 문양요소는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이중구연구순각목문이다. 구순각목문은 단독으로 출토되기도 한다. 주거지는 방형의 중소형의 주거지,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중대형이 확인되면 노지는 위석식과 수혈식이 혼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불노천주변의 봉무동유적, 동화천주변의 서변동유적, 신천천일대의 상동유적, 진천천일대의 월성동유적이 있다. 절대연대는 대략 서기전 12·11세기대가 중심이 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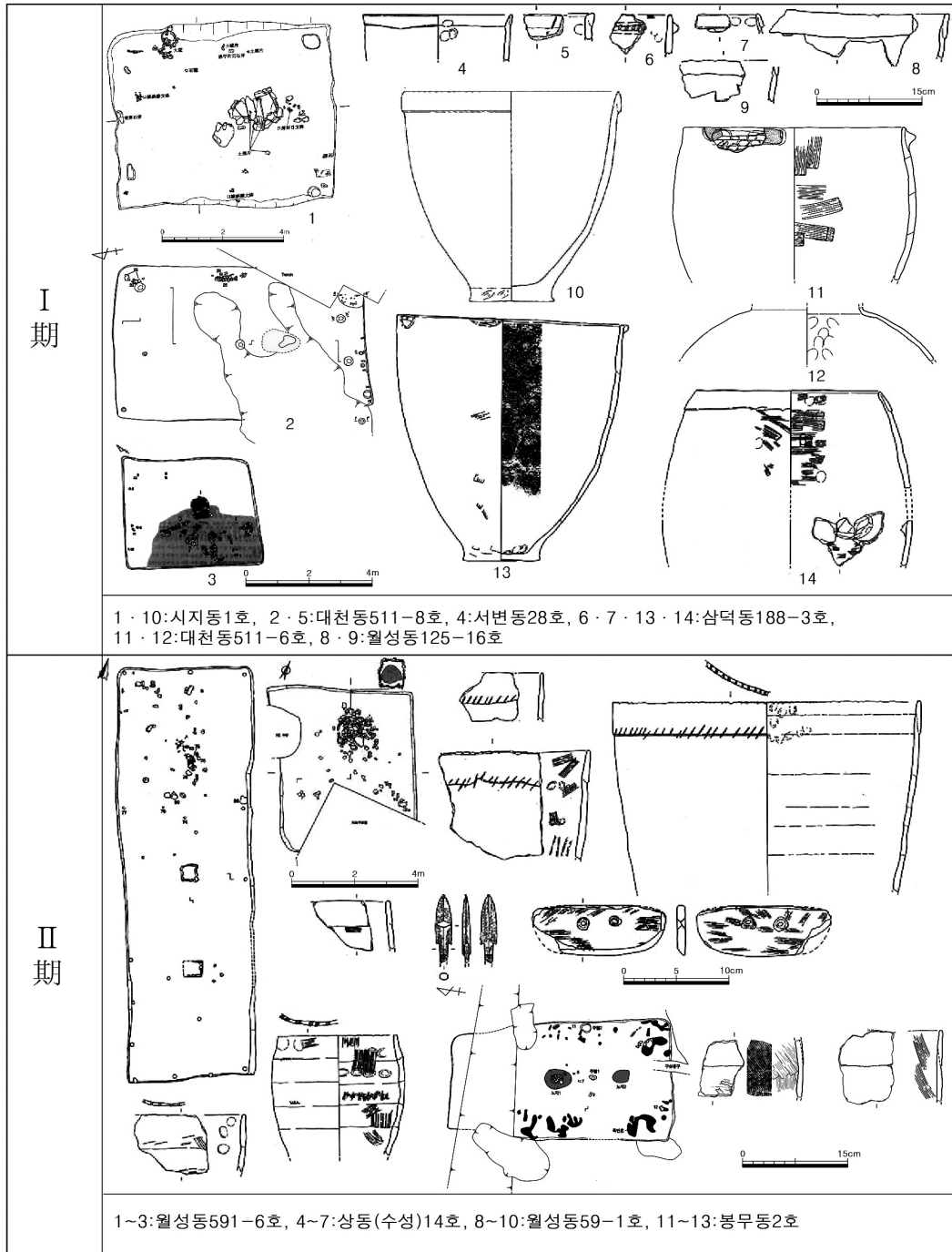
III기는 이중구연3분과 단독문이 결합된 것으로 4군의 유물조합이다. 퇴화된 이중구연에 공열문, 단사선문, 구순각목이 시문된 혼암리식토기를 지표로 한다. 복합문양의 구성은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 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이 있다. 단독문양의 경우 구순각목은 II기에 이어 확인되며, 공열문은 복합문과 공반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거지는 중대형의 장방형 및 세장방형이 사용되며, 노지는 위석식과 수혈식이 혼재하나 수혈식의 비중이 높다. 해당유적은 대분지내 모든 수계별로 분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변동유적, 상동유적, 대봉동유적, 월성동유적, 상인동유적 등이 있다. III기는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 중 가장 많은 수의 주거지가 확인되는 시기이다. 절대연대는 대략 서기전 11·10세기대로 보고자 한다.

IV기는 이중구연이 소멸되고 공열문과 구순각목이 단독으로 또는 결합되어 나타나는 역삼동식토기를 지표로 한다. 공열문, 구순각목공열, 구순각목문, 공열단사선문이 확인되며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중구연(3분)구순각목공열문도 확인된다. 주거지의 형식은 장방형이 중심이 되고 세장방형은 취락내 소수로 존재한다. 위석식노지는 확인되지 않고 모두 수혈식노지로만 구성되어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적은 신천천일대의 상동유적, 대봉동유적, 팔계천주변의 동천동유적, 매천동유적, 진천전일대의 상인동유적, 월성동유적, 불노천주변의 봉무동유적이 있어 III기의 취락분포와 동일하다. IV기의 경우 소형의 방형주거지로 구성된 취락(매천동, 동천동, 대천동 등)의 사례가 확인되며, 이 주거지의 형식은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파악되므로 IV기를 두 단계로 세분할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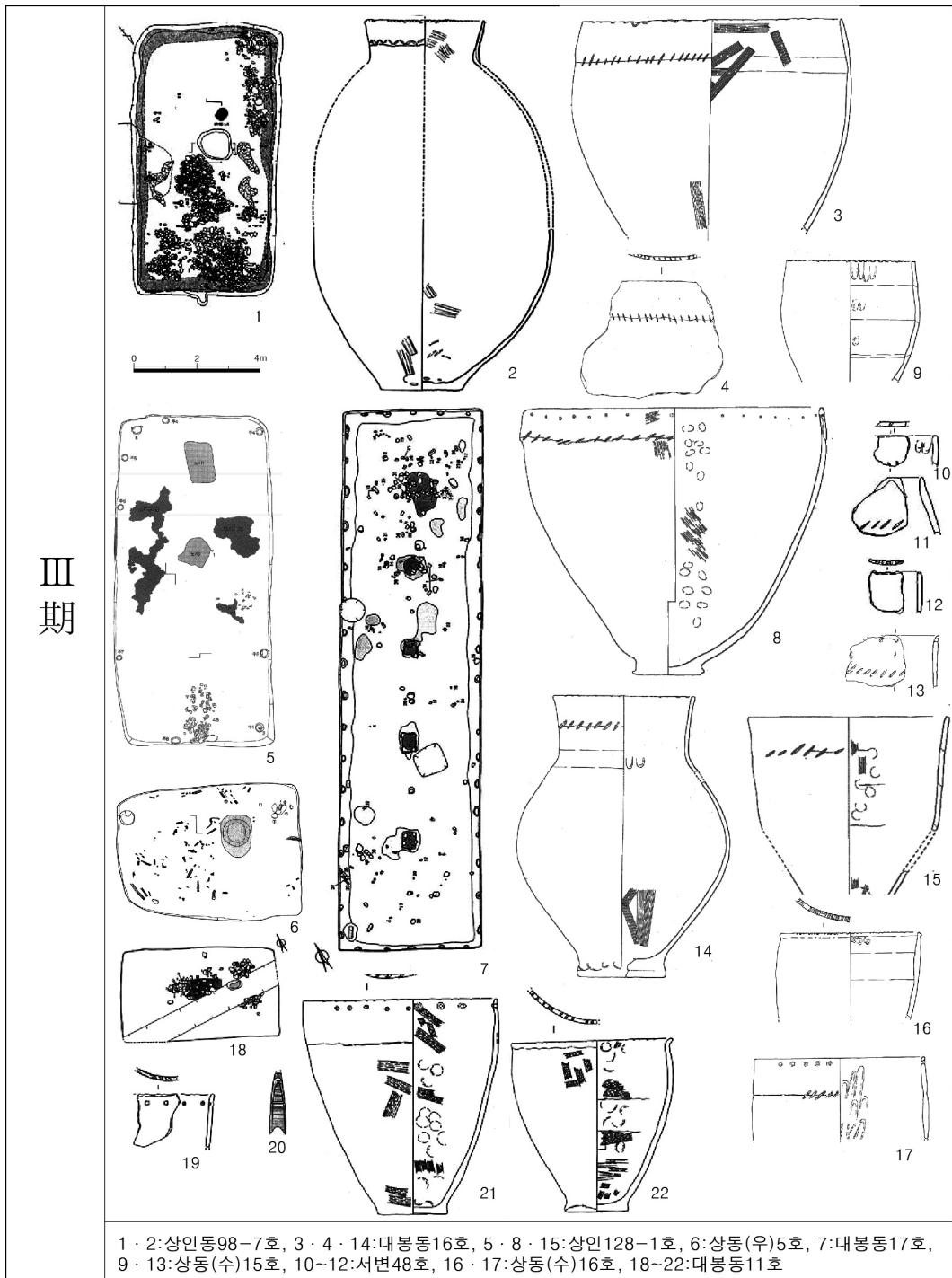
절대연대는 대략 서기전 9세기대가 중심이다.

〈표11〉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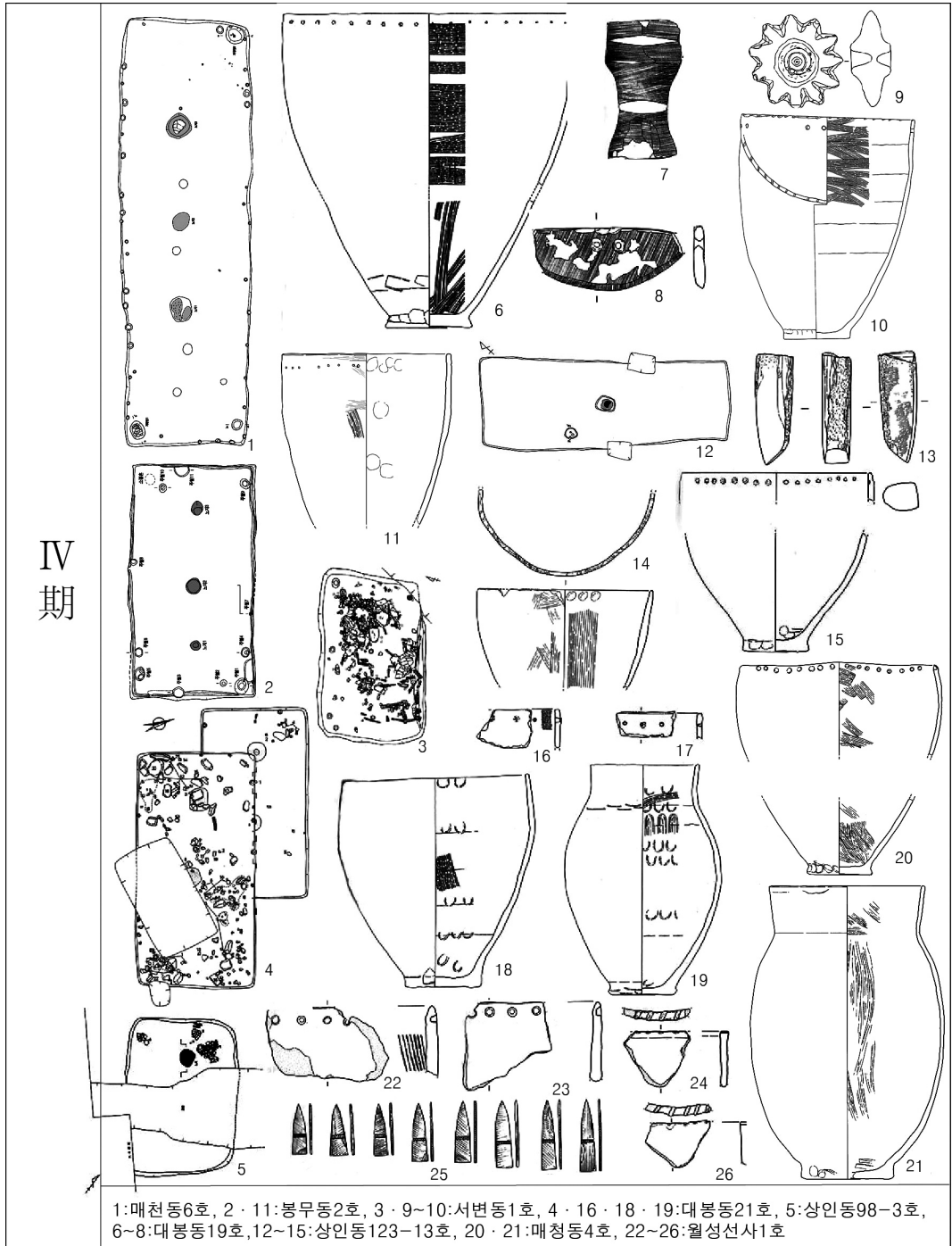
		유물	주거지	주요유적	
청 동 기 시 대 전 기	I 期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유상돌대문, 이중구연문토기 이중구연거치문, 구순각목문 무경식석축	방형, 장방형 대형,중형,소형혼재 노지는 석상위석식, 토광위석식, 초석주혈	시지동유적, 대천동511유적 월성동1275유적, 상동유적,삼덕동유적, 봉산동유적 월성동566유적외	미사리· 가락동식
	II 期	이중구연문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이중구연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 무경식석축, 이단경식석축 이단병식석검	세장방형, 장방형 중대형이 중심 위석식과 수혈식노지 혼재(위석식이 다수)	봉무동유적, 서변동유적 상동유적, 월성동1275유적 월성동59유적외	가락동식
	III 期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문 퇴화이중구연단사선문 퇴화이중구연단사선공열문 퇴화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문 공열문 무경식석축, 이단경식석축 이단병식석검	세장방형, 장방형 중대형이 중심 위석식과 수혈식노지 혼재(수혈식이 다수)	서변동유적,상동유적 대봉동유적,상인동98유적 상인동128유적 월성동선사유적 월성동585유적 월성동591유적 상인동123유적	혼암리식
	IV 期	이중구연소멸 구순각목공열문 공열문 구순각목문 공열단사선문 무경식석축, 이단경식석축 일단경식석축,이단병식석검	세장방형, 장방형, 방 형 세장방형은 취락내 몇 기로 한정, 방형은 4기 의 늦은 시기에 집중 수혈식노지중심	상동유적, 대봉동유적, 월성동선사유적 상인동123유적, 상인동128유적 상인동119유적, 동호동181유적 매천동유적, 봉무동3호	역삼동식



도8.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I, II기의 주거지 및 유물(유구1/200, 토기1/9, 석기1/6)



도9.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Ⅲ기의 주거지 및 유물(유구1/200, 토기1/9, 석기1/6)



도10.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IV기의 주거지 및 유물(유구1/200, 토기1/9, 석기1/6)

IV. 맺음말

지금까지 대구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을 토기에 표현된 문양구성의 변화 즉, 이중구연의 퇴화 및 소멸에 따른 변화의 과정을 유물간의 공반관계 및 중복관계 등에 의해 크게 4기로 구분하였다.

I기는 미사리식토기조합을 이루는 것이나 각목돌대문토기단순기라 할 만한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II기는 이중구연단사선의 가락동식토기조합이나 대구지역의 가락동식토기의 출현시점은 호서지방보다는 다소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III기는 퇴화된 이중구연과 함께 복합문양의 혼암리식토기조합인데 유물간의 공반관계나 유구간의 중복관계에서 IV기의 역삼동식토기조합보다 빠르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각 유물조합의 분포는 대구지역의 4개 수계별로 공통하며, 지구별 차이는 없어 시기차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진천천일대에 전기의 유적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금호강이북의 팔계천과 동화천, 불노천 일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적의 분포밀도가 낮은 현상과 함께 후기의 유적이 다수 분포하므로 대구분지의 서편에 위치한 진천천일대가 주변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의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물에 의한 편년은 결국 주거지의 편년, 나아가서는 취락의 편년을 위한 것일진대, 몇 개의 주거지로 구성된 주거군의 편년, 다수의 주거군으로 구성된 취락의 편년이 가능해야 이 시기의 문화상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락고고학의 가장 걸림돌 중의 하나가 취락의 공간범위와 공시성의 확보라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의 주제는 그 목적성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2, 『대구 수성구 상동 우방아파트건립부지내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
- _____, 2004, 『대구 수성초등학교부지내 上洞遺蹟發掘調査報告書』.
- _____, 2006, 『大邱大鳳洞마을遺蹟』.
- _____, 2008, 『大邱 上仁洞87番地遺蹟』.
- _____, 2008, 『大邱 月城洞772·2番地遺蹟』.
- _____, 2009, 『大邱 月城洞498番地遺蹟』.
- _____, 2009, 『大邱 月城洞1361番地遺蹟』.
- 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大邱의 文化遺蹟·先史·古代』.
- _____, 1990, 『大邱 月城洞 先史遺蹟』
- _____, 2000, 『辰泉洞·月城洞 先史遺蹟』.
- 大東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月城洞1363番地遺蹟』.
- _____, 2008, 『大邱 上仁洞98·1番地遺蹟』.
- _____, 2008, 『大邱 月城洞1363·1番地遺蹟』.
- _____, 2011, 『大邱 上仁洞119·20番地遺蹟』
-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대구 월배지구 근생 제7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 자료」. (월성동566번지유적)
- 삼한문화재연구원, 2010, 「대구 봉산동 185·4번지 근생시설증축부지내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三韓文化財研究院, 2010, 『大邱 上仁洞128·8番地遺蹟』.
- _____, 2011, 『大邱 三德洞188·1番地遺蹟』.
- _____, 2011, 『大邱 上仁洞112·3番地遺蹟』.
- 聖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月城洞591番地遺蹟』.
- 嶺南大學校博物館, 1999, 『時至의 文化遺蹟 I』.
- _____, 2002, 『大邱 梨泉洞 支石墓』.
- _____, 2006, 『大邱 月城洞1275遺蹟』.
- _____, 2007, 『大邱 月城洞585遺蹟』.
- _____, 2000, 『大邱 八達洞遺蹟 I』.
- _____, 2002, 『大邱 東川洞聚落遺蹟』.
- _____, 2002, 『大邱 西邊洞聚落遺蹟』 I.

- _____, 2003, 『大邱 東湖洞遺蹟』.
- _____, 2003, 『大邱 辰泉洞遺蹟』.
- _____, 2005, 『大邱 東湖洞477遺蹟』.
- _____, 2006, 『大邱 東湖洞451遺蹟』.
- _____,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 I』.
- _____, 2007, 『大邱 月城洞 1261番地遺蹟』.
- _____, 2008, 『大邱 上仁洞123·1番地遺蹟』.
- _____, 2008, 『大邱 大泉洞 497·2番地遺蹟』.
- _____, 2009, 『大邱 大泉洞 511·2番地遺蹟』.
- _____, 2010, 『大邱 梅川洞遺蹟』.
- _____, 2011, 『大邱 鳳舞洞遺蹟 V』.
- _____, 2012, 『大邱 東湖洞181番地遺蹟』.

- 김한식, 2002, 「남부지방 송국리유형 주거지연구」『湖西考古學』6·7, 湖西考古學會.
- 김현식, 2008a, 「호서지방 전기무문토기 문양의 변천과정 연구」『嶺南考古學』44,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8b,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의 文化史的 意味」『考古廣場』2, 釜山考古學硏究會.
- 白弘基, 1992, 「I. 江原嶺東地方의 無文土器文化」『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硏究 II』.
- 朴榮九, 2000, 「嶺東地域 靑銅器時代 住居址硏究」檀國大學校碩士學位論文.
- 安在晧,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韓國考古學報』34,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6, 『靑銅器時代 聚落硏究』, 釜山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 _____, 2009, 「南韓 靑銅器時代 硏究의 成果와 課題」『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硏究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李相吉, 1999, 「晉州 大坪漁隱1地區 發掘調查概要」『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동아대학교박물관.
- 李亨源, 2007, 「남한 청동기시대 전기의 상한과 하한」『한국청동기학보』창간호, 한국청동기학회.
- _____, 2009, 『韓國 靑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 千羨幸, 2007, 「무문토기시대 초기의 설정과 시간적범위」『한국청동기학보』창간호, 한국청동기학회.
- 河眞鎬, 2008, 『大邱地域 靑銅器時代 聚落硏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庄田慎矢, 2009, 「朝鮮半島南部靑銅器時代의 編年」『考古學雜誌』第93卷.